

민주당, ‘광주 핫코너’ 봉선동 찾아 민심 경청 공들이기

지난 대선, 국힘 득표를 높은 곳
김민석·신정훈·양부남 의원 참석
KTX 증편·의대문제 등 논의
“여러 정책 대화·타협 통해 해결”

“인구소멸 지역 1가구 1주택의 경우 중과세를 완화해주세요, “슬세권(슬리퍼로 가능한 생활권)을 만들어주세요.”

2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광주 지역 보수 지지 성향 지역 ‘경청 간담회’에 참여한 봉선동 주민들의 요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봉선2동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다는 점<5월 14일자 광주일보 1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4시께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양부남 광주선대위원장이 참여해 행사의 무게감과 비중을 강조했다.

또 지역주민으로는 봉선동 학부모, 변호사, 의료인, 봉선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업체대표 등 10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주택은 주거와 동시에 자산이라는 점에서 봉선동 거주를 고집하는 것은 학군 등의 요소도 있지만, 뚝뚝한 한 채를 갖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구소멸 지역인 광주 같은 지역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 경우 면적과 거래가 등에 따른 중과세를 완화 해야 미분양 문제와 인구 소멸이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은 “봉선동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상가가 30%로 제한돼 있는데다 상가 주변 도로가 너무 좁아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북대 지중화와 상가 제한 50%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도 뚝뚝한 실거주 한 주택 중과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당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후보가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완화) 정책을 가장 먼저 내놔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에는 실용성을 강조한 과세 정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광주지역 문화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에서 이주해 20년째 봉선동에서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광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보다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많다”면서 “서울은 ‘슬세권’으로 극장과 쇼핑도 슬리퍼 신고 다 할 수 있지만, 고소득 고학력 특구인 남구 봉선동은 20년째 극장 하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말마다 서울에 가는 주된 이유는 공연”이라면서 “광주 문화예술 회관과 콘서트가 진행되는 김대중 컨벤션홀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부족하다. 중



광주에서 보수성향이 있는 일부 지역의 표심을 잡기위해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부남 광주선대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남구 봉선동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합적인 문화 향유 공간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호남고속열차 증편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요와 공급을 따져 배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실제 필요성과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많이 거주하고, 의대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의정갈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병원 관계자로 일하는 한 주민은 이 후보의 의료 개혁 정책을 물었고, 의대생 딸을 둔 학부모는 이 후보의 의정갈등 해결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의정갈등 문제는 윤석열 전 정권에서 너무 대책없이 진행해 꼬여 있는 상태”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본질이 단순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별 편차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해 의료계와 함께 개혁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만큼 높은 사교육비에 대한 해결책과, R&D 예산 정책 등의 교육에 대한 정책 질문도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사교육비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내는 정부는 없었다”면서 “공교육 강화, 교육경쟁 완화, 교육비 지원 등 정책이 있지만 여러 정책을 다양하게 합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기초과학에 꿈을 가지고 과학고와 영재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메디컬 과로 전과하지 않도록 연구개발비 등을 든든하게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이후보의 정책 자체가 첨단 산업이 기반이라는 점에서 기초과학 분야는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양부남 위원장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후보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질 것”이라면서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군사 규제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 김문수 “지방에 문화 예술 여가 인프라 확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자신의 정치적 ‘홀그라운드’ 격인 경기도에서 표밭 잡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이틀째 표심잡기 총력전을 벌였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에서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남은 14일간의 총력 레이스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 경기 북부권을 방문해 ‘평화 경제’와 ‘군사 규제 보상’을 키워드로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파주 유세에서 “이제는 공평하게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집단·지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더이상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며 “군사 규제로 온갖 피해를 입은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한

보전·보상 조치를 해줘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양 유세에서 “경기 북부가 휴전선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온갖 규제를 당하고 있다. 이것을 많이 완화하고 평화 체제도 구축하고, 북한과 대화도 하고 휴전선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파주 유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조금 전까지 있던 그 정권이 단순히 내란만 일으킨 게 아니다. 북한을 자국해 군사 충돌을 유발한 다음 비상계엄을 시행해 영구 집권, 영구적 군정을 폈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이틀째 표심잡기 총력전을 벌였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서울 서초·송파 등 강남권 뒷밭부터 다지면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예총회관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협약식에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가 책임 지고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지원하지 않고서는 유지도 안 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지방이다. 시골에 사람이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며 문화·예술·여가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약식에서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10분 문화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등 지역 분관을 설치하고, 누구나 10분만 걸으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동네 공연장 등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확대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광주에 자율주행 특구 조성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광주에 자율주행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AI 모빌리티 사업의 가장 큰 축인 자율주행 특구를 광주에서 실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기간 3번째 광주를 방문한 이 후보는 “광주는 모빌리티 도시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면서 “규제를 대폭 줄여 자율주행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광주공항에 대한 의견도 내놔다.

최종적으로는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해야 하지만, 무안 공항 복구작업에 시일이 걸리고 호남인의 국제선 이용 불편 개선 등을 고려해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살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획이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해남데이터 센터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용을 지적인 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원전 전력 등의 사용을 연계하는 방식이 고려된다면, 해남의 가능성을 보고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구상도 내놔다. 지방법원세 확대,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주력 사업인 AI 사업에 대해서는 “AI산업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AI연구자 등에 연구자금 지원 등 인재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목표를 대구·광주·부산 등에서 균등한 투표율을 얻어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것”이라면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친 일상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힐링은 해남처럼

